



순창군 장애인선수단 결단식 개최

순창군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4일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앞두고 선수단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승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가졌다.

이날 결단식은 순창군 장애인체육회(회장 최영일 군수)의 격려 인사와 함께 출전현황 보고, 단기수여 및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김제시에서 열리는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13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을 포함 총 100여명이 출전해 종합 6위를 목표로 약한 달여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 왔다.

이날 결단식에 참석한 최영일 순창군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모든 선수가 부상자 없이 대회를 무사히 마치길 바란다"며 "선수단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순창군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 금산면 복지공동체, 집 청소 봉사 나서

김제시 금산면 복지공동체(대장 장민호)는 지난 4일 저장급박증 가구의 집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금산면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막걸리병, 잦은 옷가지 및 잡동사니를 집에 쌓아놓고 사는 저장급박증 대상자로 관내 환경미화원을 위해 청소가 시급한 상태였다.

집안 내·외부에 쌓여있던 각종 잡동사니 등을 수거하며 연신 구슬땀을 흘렸다. 온갖 잡동사니를 수거 후 직접 대원들이 쓸고 닦으면서 집 내부를 청소하였으며, 본인들의 지게차, 화물차 등 장비를 손수 가져와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119 허위신고 엄정 대응"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화재·구조·구급의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거짓·허위신고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지난 4월 익산 오산면에서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지휘차 등 총 12대의 소방차량을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확인한 결과 거짓 신고로 판명되어 신고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회의 경우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는 50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소재실 서장은 "허위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 상황 시 대처가 늦어져 시민안전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근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대 해양수산관리전공, 승하선 교대식

승선 실습 마친 3학년 학생들 · 새로이 시작하는 2학년 학생들 격려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수산관리전공은 승선 실습을 마친 학생들과 새로이 시작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념하기 위한 2023 승하선 교대식을 실시했다.

해양수산관리전공에서는 매년 2학기 초가 되면 학생회의 주최로 새로이 실습선 새해림호에 승선하는 2학년 학생과 1년 동안의 승선 실습 과정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이 승하선 교대식을 한다.

올해도 승선 실습 1년 과정을 마친 3학년 학생과 이제 1년 과정을 시작하는 2학년 학생들과 승하선 교대식을 했다.

승하선 교대식은 3학년들이 2학년 학생들에게 장기간 승선 실습에 임하는 후배들에게 격려하고, 2학년은 성실한 실습 태도로 실습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이날 3학년 유정현 학생은 국제항해 실습 보고를 통해 교과목 국제항해 실습의 실습과제 중의 하나인 항해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도와 더불어 전자해도표시장치(ECDIS) 상에 치밀하게 항해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발표하여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을 알렸다. 이 항해계획은 군산에서 일본의 도쿄까지 1,000여해리, 16노트의 속력으로 2일 14시간이 걸리는 거리, 좁은 수로 항해와 대양 항해가 적절하게 펼쳐져 있어 항해 실습에 최적의 항로였다.

승선 실습을 마친 3학년 학생 허석찬 학생은 "기초승선 실습, 기초항해 실습, 연안항해 실습, 종합승선 실습 및 국제항해 실습을 통해 무능에서 유능으로 가는 나



의 인생의 징검다리를 건넌 것 같고, 특히 종합승선 실습 때 울산의 반구대의 고래잡이 안락화에서 우리 선조들의 바다를 경영한 DNA가 저의 몸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습을 무사히 마친 3학년 학생들은 유능함과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실습을 제공하여 자아 개발의 장을 열어 주신 학교와 학과 그리고 새해림호 실습선 관계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1년간 실습을 담당한 김민선 교수는 "이곳 군산에서 수산교육이 시작된 지 1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면면히 이어오는 서해안 지역의 유일한 고급 수산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진안군 마령면,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대상'

진안군은 5일 마령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제10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농촌만들기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스스로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 10번째 열렸다.

마을만들기·농촌만들기·우수활동가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진 콘테스트에서 마령면은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마령면은 전문가의 현장평가 외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중심지의 지속적인 활성화, 배후마을 주민의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령면은 2016년~2021년까지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마령활력센터를 조성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일일빵집, 마령장터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계속해서 활성화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은 마령 주민들이 하나 되어 이뤄낸 성과"라며, "마령 활력센터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성일병원, 노암동에 입원환자 재배 작물 기탁

남원시 노암동은 지난 4일, 남원성일병원(이사장 곽성주)에서 병원 입원환자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노암동에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성일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병원으로, 이번에 기탁된 작물은 병원 입원환자들이 4월부터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의미있는 작물들이다.

곽성주 성일병원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환자분들이 직접 재배한 수확물을 나눠 노암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재무과, 환경정화활동·매력부안 홍보 캠페인

부안군 재무과는 지난 4일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와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청결' 실천 활동을 위해 모항해수욕장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매력부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부안군 재무과 직원,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바다쓰레기와 주변 지역의 쓰레기를 주위 환경을 정화하고, 매력부안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군민의 친절, 질서, 청결의 가치를 함양시켰다.

부안군 재무과와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는 상호협력하여 모항해수욕장의 청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다.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캠페인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모항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소방서, 반딧불축제 소방안전체험부스 운영

무주소방서는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다양한 소방안전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부스를 오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체험부스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 소화기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체험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Advertisement for '전주매일'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